

#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안은경\*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 The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Nursing Students

EunKyong Ahn\*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설계 연구이다. 일개 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총 6주간 30시간의 간호윤리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 전과 후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본 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에서 실시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간호, 간호윤리 교육, 간호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NE) on Spiritual well-being(SW), Attitude toward death(AD)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PH) in nursing students. This research used a one group pretest-posttest experimental design. Thirty hours NE program was given to 42 nursing students for six week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aired t-test with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there are no significant effects of NE on SW, AD and PH. However, it was found one thing interest that neither our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 nor others' had significant effects on attitude toward death. Nurses provide care to people at the end of their lives more often than any other healthcare provid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improving positive attitude toward death.

**Key Words :** Spiritual well-being, Attitudes toward death, Hospice palliative care, Nursing Ethics education,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EunKyong Ahn(aek@dst.ac.kr)

Received April 22, 2020

Revised May 05, 2020

Accepted June 20, 2020

Published June 30, 2020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과정이며, 죽음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인식하는지, 또 어떤 지지와 간호를 받느냐에 따라 죽음의 질도 달라진다[1]. 그러므로 간호사는 경건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2].

그러나, 대부분의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3], 죽음에 대한 교육과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4] 적절한 지지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대상자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졸업 후 바로 대상자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임종환자와 가족을 간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7,8].

죽음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질적인 임종간호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제공자의 영적 상태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9], 간호사의 영적 안녕상태는 임종환자 간호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5,9]. 따라서 임종환자의 영적 평안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간호제공자의 영적 안녕 유지가 필요하므로[5],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9].

호스피스 완화간호는 말기 환자가 임종단계에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측면의 돌봄을 고려한 총체적 돌봄이다. 호스피스 완화간호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간호대학생들은 호스피스 완화간호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3], 말기환자의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의 무의미성 등에 대한 이해가 낮으므로 호스피스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1].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죽음을 이해하고 전인적 호스피스완화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선행 연구[1,3,4,5,7,9,10]에서도 이미 강조된 바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로 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이의 효과를 탐색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5,6,11,12]. 또한 이들 연구에서 시행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호스피스에 관한 것으로서, 죽음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과 영적 안녕 수준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으나 개별적 효과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임종간호 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죽음의 상황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13]와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5].

간호사는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과정에서 간호윤리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이해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간호윤리는 모든 간호행위에 있어 기본 지침이 되므로 간호윤리학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태도는 이후 접하게 되는 전공과목의 내용을 익히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뿐 아니라 간호윤리에 대한 기본 이해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간호윤리 문제 해결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간호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며,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영적 안녕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2.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

가설 3.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

## 2. 연구 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들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및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 실험 연구이다(Fig. 1).



Fig. 1. Study Design

(SW: Spiritual Well-being, AD: Attitude toward Death, PH: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소재의 일개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간호윤리 교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 42명이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80으로 G\*Power 3.1.9.7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최소 표본 크기는 19명으로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감안하여 48명을 편의 표출하였으나, 불완전한 응답자 6명을 제외한 4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간호윤리교육의 구성 및 운영

간호윤리교육은 1회 2시간씩 주 2회(총 4시간/주) 총 6주간 실시되는 교육을 말한다. 대상자들은 학사일정에 따라 1회차로 2주의 교육을 받고, 4주 후에 2주간의 2회차 교육을 받았으며, 다시 6주 후 2주간의 3회차 교육을 받아 총 3회에 걸친 6주간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 내용은 간호윤리의 개념, 윤리이론, 생명 의료윤리원칙과 윤리적 의사결정, 생명의 시작과 간호 윤리, 죽음의 문제와 간호윤리, 치료 및 간호과정과 관련된 간호윤리, 간호사와협력자 간의 윤리, 연구윤리이다.

ELNEC project Korea 교수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수년간 간호윤리 교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 연구자가 간호윤리교육을 수행하였다.

### 2.4 연구도구

#### 2.4.1 영적 안녕

Paloutzian과 Ellison(1983)이 개발하고, Choi가 번안하여 Kang(1996)이 수정 보완한 도구[15]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실존적 안녕 10문항과 종교적 안녕 10문항, 총20문항의 4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 4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1$ 이었다.

#### 2.4.2 죽음에 대한 태도

Chwartz 등이 개발하고 Jeong이 번안하여 사용한 좋은 죽음도구(The Concept of Good Death Measure)[16]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친밀감 9문항, 통제감 3문항, 임상증상 5문항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17문항의 도구이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언제나 그렇다’ 4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17)의 연구[16]에서 Cronbach’s  $\alpha = .80$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3$ 이었다.

#### 2.4.3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Lee[17]가 개발한 1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목적 6문항, 호스피스 완화의료 필요성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동의’ 5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호스피스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ark(2017)의 연구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목적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0$ , 호스피스 완화의료 필요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8$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6$ 이었다.

### 2.5 자료수집 및 연구윤리

본 연구는 D 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2019-003-012)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 조사 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였고, 사후조사 기간은 12월 2일

부터 12월 5일까지였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 배부 전 연구의 목적과 내용, 언제라도 설문에 대한 응답을 거절할 수 있으며 연구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에게 서면동의를 받았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20분정도였고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고, 연구 변수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학생이 36명(85.7%), 남학생 6명(14.3%)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종교는 없음이 25명(59.5%)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9명(21.4%), 천주교 4명(9.5%) 순으로 많았다. 최근 1년 동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사별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35명(83.3%)으로 있는 대상자(7명, 16.7%)보다 많았다. 모든 대상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n=4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6	14.3
	female	36	85.7
Religion	Protestant	9	21.5
	Catholic	4	9.5
	Buddhism	4	9.5
	Other	0	0
	None	25	59.5
Bereavement experience	Yes	7	16.7
	No	35	83.3
Experience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Yes	0	0
	No	42	100

3.2 간호윤리교육 전·후 영적 안녕의 변화

가설 1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영적 안녕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영적 안녕 정도는 4점 만점에 교육 전 평균 2.47(±.47), 교육 후 평균 2.51(±.49)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실존적 안녕은 교육 전 평균 2.47(±.45)점, 교육 후 평균 2.51(±.45)로 나타났고, 종교적 안녕은 교육 전 평균 2.64(±.51)점, 교육 후 평균 2.51(±.57)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영적 안녕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Table 2. Mean differences of Spiritual well-being (n=42)

V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SW	2.47	.47	2.51	.49	-0.378	.707
E	2.47	.45	2.51	.45	-0.341	.735
R	2.64	.51	2.51	.57	-0.390	.699

SW: Spritual well-being(E: Existential, R: Religious)

3.3 간호윤리교육 전·후 죽음에 대한 태도의 변화

가설 2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Mean differences of Attitude toward death (n=42)

V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AD	2.82	.65	3.03	.41	-1.807	.078
I	2.94	.71	3.15	.47	-1.554	.128
SC	2.75	.85	3.00	.60	-1.498	.142
CS	2.63	.65	2.83	.42	-1.902	.064

AD: Attitude toward death(I: Intimacy, SOC: Sense of Control, CS: Clinical symptom)

총 죽음에 대한 태도 정도는 4점 만점에 교육 전 평균 2.82(±.65), 교육 후 평균 3.03(±.41)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친밀감은 교육 전 평균 2.94(±.71)점, 교육 후 평균 3.15(±.47)로 나타났고, 통제감은 교육 전 평균 2.75(±.85)점, 교육 후 평균 3.00(±.60)로 나타났으며, 임상증상은 교육 전 평균 2.63(±.65)점, 교육 후 평균 2.83(±.42)로 나타났고, 통

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

### 3.4 간호윤리교육 전·후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설 3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교육 전 평균 3.87(±.45), 교육 후 평균 3.76(±.67)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호스피스 완화간호의 목적은 교육 전 평균 4.27(±.59)점, 교육 후 평균 4.10(±.13)로 나타났고, 필요성은 교육 전 평균 3.78(±.10)점, 교육 후 평균 3.53(±.10)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간호윤리교육 전보다 교육 후의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기각되었다.

**Table 4. Mean differences of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n=42)

V	Pre-test		Post-test		t	p
	M	SD	M	SD		
PH	3.87	.45	3.76	.67	0.974	.336
P	4.27	.59	4.10	.13	1.175	.247
N	3.78	.10	3.53	.10	1.813	.077

PH: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P: Purpose, N: Need)

## 4. 논 의

본 연구의 결과, 간호윤리교육 전과 교육 후의 영적 안녕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실존적 안녕은 미미하게 증가하였고, 종교적 안녕 점수는 오히려 교육 후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는 호스피스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 선행 연구[6]에서 교육 전과 후에 영적 안녕 상태의 유의한 변화가 없었고, 실존적 안녕 점수는 증가하였으나 종교적 안녕 점수는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웰다잉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에 유의한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Yoon 등의 연구[5]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의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의 종교 유무나 종교적 신념 정도가 종교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선행 연구 결과[6]를 지지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 대상자의 59.5%가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윤리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의 죽음에 대한 태도 점수는 사전 조사에 비해 사후 조사에서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한 Back의 연구[17]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친밀감, 통제감, 임상증상 점수 모두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웰다잉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5], 호스피스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이 없었다는 연구[12], 죽음준비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인식에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1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상자들은 어린 시절부터 죽음을 터부시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미 죽음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윤리교육 전과 교육 후의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총점과 하위영역인 호스피스 완화간호의 목적과 필요성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점수는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0.1~0.2점 정도의 미미한 감소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이미 임상실습이나 전공 교과목 강의를 통해 호스피스 완화간호의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Kim[11]은 호스피스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호스피스간호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한 지식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웰다잉 교육[5], 호스피스교육[12], 죽음준비교육[19]은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스피스병동 실습교육[6]은 간호대학생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고, 일반인 대상의 죽음준비교

육[20]도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형태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 향상에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대학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단일군 사전·사후 설계의 중재연구이기 때문에 대조군을 선정하여 비교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직접 교육과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총 6주간의 교육을 학사일정상 3회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각 회차 사이에 각각 2주와 6주간의 공백기가 있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간호윤리교육은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간호윤리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점은, 호스피스병동 실습교육, 웰다잉교육, 호스피스 교육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 론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제공자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정립과 호스피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11]. 또한 죽음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임종환자의 영적 안녕을 위해서는 간호제공자의 영적 안녕 유지가 중요하다[6]. 이를 위한 간호대학에서의 윤리교육은 간호사가 환자의 옹호자로서 윤리적 간호를 수행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윤리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와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이나 호스피스에 집중한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과 달리 간호윤리의 본질적 이해를 위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를 탐색하였으나 간호대학생

의 영적 안녕, 죽음에 대한 태도,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와 선행 연구를 포함하여 볼 때,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호스피스 완화간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확인되었지만, 죽음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적인 임종간호 제공을 위한 간호윤리교육의 효과를 점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ACKNOWLEDGMENTS

본 논문은 2019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REFERENCES

- [1] E. A. Cho. (2018).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among The Nursing Graduates. *The J of the Kor Contents Assoc*, 18(12), 624-638. DOI:10.5392/JKCA.2018.18.12.624
- [2] J. Y. Han. (2015). Perception of Good Death and Attitudes toward Death between ER Nurses and Coroners. *The Kor J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8(1), 16-24.
- [3] H. J. Lee. (2013). A Study on the Nursing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and Perception on Hospice Care. *J of East-West Nur Res*, 19(2), 88-95. DOI:10.14370/jewnr.2013.19.2.88
- [4] Y. H. Kim, Y. S. Yoo & Y. K. Cho. (2013).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toward Death of Terminal Patients, *The Kor J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6(1), 1-9.
- [5] M. O. Yoon & K. H. Yang. (2017). The Effects

- of Well-dying Education Program-based Hospice Care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Theological Studies*, 31(4), 171-198.
- [6] K. D. Kim. (2016). The Effects of Hospice Unit Practice Education on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 Death, and Hospice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Asian Oncol Nurs*, 16(4), 176-184. DOI:10.5388/aon.2016.16.4.176
- [7] Y. J. Lee & Y. S. Kim. (2017). The Difference of the Death Perception, Death Attitude and the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completion of Bioethics Education. *J Kor Bioethics Assoc*, 18(2), 95-109.
- [8] M. Deborah & R. Angella. (2014). Transitioning RN to BSN students from acute care to hospice care nursing. *The ABNF J*, 25(4), 103-109.
- [9] K. H. Kim, K. D. Kim, H. S. Byun & B. Y. Chung. (2010). Spiritual Well-Being, Self Esteem, and Attitude to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J Kor Oncol Nurs*, 10(1), 1-9.
- [10] J. H. Park. (2017). Good Death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wareness of General Hospital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11] Y..E. Lee, E. J. Choi & J. S. Park. (2012). Effects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ducation on Knowledge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Nursing Students. *J Kor Public Health Nur*, 26(2), 280-288. DOI:10.5932/JKPHN.2012.26.2.280
- [12] M.Y. Ham, S. H. Lim & K.S. Jeong. (2017). Effect of Hospice Education Including a Death Preparing Education Program on Perception of Death, Attitude of Death and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Nursing Students. *JLCCI* 17(9), 361-380. DOI : 10.22251/jlcci.2017.17.9.361
- [13] Y..S Park & J. H. Kim. (2017). Influence of Attitude to Death and Resilience on Terminal Care Attitude among Korean Nursing students. *J Kor Acad Soc Nurs Educ*, 23(1), 37-47. DOI:10.5977/jkasne.2017.23.1.37
- [14] H. Y. Hwang. (2017). The Current Status and Consideration for Nursing Ethics Education in South Korea. *Korean J Med Ethics*, 20(3), 305-316.
- [15] J..S. Jeon. (2014). *Spiritual well-being, Attitude towards Death and Perception of Hospice among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16] J. H. Park. (2017). *Good Death and Hospice Palliative Care Awareness of General Hospital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 [17] Y. J. Lee. (2004). *A study on nurse'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and hosp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of Daejeon).
- [18] S. Y. Baek. (2018). *A Study on the Death Consciousness and the Awareness of Good Death in the College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 of Digit Converg*, 16(10), 271-279. DOI:10.14400/JDC.2018.16.10.271
- [19] D. H. Byun & M. H. Park. (2017).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about the Meaning of Life, Death and Well-dying and Hospice. *J the Kor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5), 169-176. DOI:10.5762/KAIS.2017.18.5.169
- [20] P. L. Tsung, Y. J. Lee, S. Y. Kim, S. K. Kim, S. A. Kim, H. J. Kim, Y. Nam, S. Y. Ham & K. A. Kang. (2015). Effects of Death Preparation Education on Awareness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n City Dwellers. *The Kor J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18(3), 227-234.

안은경(EunKyong Ahn)

[정회원]



· 200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간호윤리, 리더십  
 · E-Mail : aek@dst.ac.kr